1. 자신의 장단점과 함께 본인을 소개해 주세요. 또한 다양한 IT 동아리 중에서 멋쟁이사자처럼을 선택하고 지원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세요. (700자 이내)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24학번 기태린이라고 합니다. 코딩 공부를 혼자 하다보니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함께 으쌰으쌰 할 수 있는 팀이나 동아리를 찾아보다 ‘멋쟁이사자처럼’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동아리들과는 다른 멋사의 체계적인 커리큘럼, 열정이 없다면 수행할 수 없을 세션, 과제, 프로젝트들을 보고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꼭 이 동아리에 가입해야겠다고 마음 먹게 되었습니다. 멋사를 통해 저 혼자만이 아닌, 팀과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프로그래밍 공부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베이스 실력은 부족할 수 있지만, 제가 가진 열정과 실행력 만큼은 누구보다 충만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저는 고등학교 시절 신문부 부장, 청소년 외교단 회장 역할을 맡으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협업 능력을 키웠습니다. 저는 이 두 능력이 ‘좋은 팀워크’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제가 멋사에서 활동하게 된다면, 분명 저의 능력과 밝고 외향적인 에너지가 팀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동료들이 저에게 주는 지속적인 자극은 혼자서는 쉽게 나태해지는 저에게 꼭 필요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2. 맡은 바 최선을 다했던 경험을 서술하고, 그 성장 과정에서의 배움을 멋쟁이사자처럼 활동에서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지 서술해 주세요. (500자 이내)

저는 휴학하는 동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수석 매니저, 그리고 점장까지 맡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로 인해 매출이 크게 성장하였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러한 결과의 바탕에는 제가 단지 아르바이트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주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매장을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주가 저를 좋게 평가하고 매장을 믿고 맡겨주었기 때문에, 매출을 올리기 위해 발주는 어떻게 넣으면 좋을지, 시간대별 손님을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진열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고민해가며 최선을 다해 운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책임감, 마음 먹은 것은 바로 시작하는 실행력, 목표를 달성하고야 마는 끈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멋사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팀원들과 협력하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처음 개발을 배우는 과정에서도 끈기 있게 도전하며 성취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지원자가 멋쟁이사자처럼 내 협업에서 어떻게 소통할 예정인지 서술해 주세요. (500자 이내)

팀플을 할 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량은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맡은 역할의 진행 상황이 어떤지, 뭐가 잘 안 되고 있는지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야 수정 사항이 빠르게 반영되어 프로젝트의 질도 높아지고 진행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팀원 간 소통이 강화되면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도 높아집니다. 자신이 맡은 일의 최고 관리자가 되어야 본인이 맡은 일의 전반을 다른 팀원에게 매끄럽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멋사 내 협업을 하게 된다면, 텍스트(카톡)보다는 음성(줌, 대면)으로 회의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텍스트로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전달 내용과 말투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동기적 소통을 활발히 이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실시간 대화 없이도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는 방식으로, 팀원들이 언제든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는 노션, 구글독스와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 비동기적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4. 지원한 파트를 선택한 이유와 해당 파트 활동을 통해 어떤 성장을 목표로 하는지 서술해 주세요. (500자 이내)

평소 인터넷 서핑을 즐기는 편인데, 제가 매일같이 들여다 보는 웹페이지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다는 점이 프론트엔드의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HTML과 JavaScript 공부를 시작했는데, 혼자서는 감이 잘 안 잡혀서 멋사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며 웹 개발자가 갖춰야 할 전반적인 코딩 실력을 갖추고 싶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협업 능력을 강화하고, 세션 외에도 스스로 노력하여 실무에 가까운 개발 경험을 얻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프론트를 어느정도 할 줄 알게 된다면 백엔드와 디자인까지 모두 아우르는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트렌디한 웹 개발자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1.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역량과, 그 역량이 중요한 이유를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해 주세요. (500자 이내)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은 ‘사용자 경험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프론트엔드는 사용자가 직접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근무할 때, 고객의 입장에서 매장을 바라보고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매장 내 동선을 고려해 진열을 재배치하고, 자주 찾는 제품을 눈에 잘 띄게 배치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론트엔드 개발에서도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UI/UX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예쁘기만 한 페이지를 만드는 것을 넘어, 사용자 흐름을 이해하여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2. 팀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을 예상하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500자 이내)

팀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팀원 간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주장만을 과다하게 주장하다보면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일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갈등의 중심 인물일 경우에는, 의견이 부딪히는 사람과 텍스트로 싸우기 보다는, 실제로 만나 둥근 말투를 사용하여 서로의 의견을 절충할 것을 제안할 것입니다. 만약 저의 제안이 끝까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도 팀의 평화를 위해 저의 의견을 굽힐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갈등 밖에 서 있는 제 3자의 입장이라면, 객관적 판단을 바탕으로 의견의 절충점을 모색하거나, 투표를 할 것을 제안할 것입니다.